

주요개념 :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일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조 향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를 거친 초기 성인기의 단계에 있는 까닭에 성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문제, 대학 생활에의 적응, 직업 전망, 직업 적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전반적인 철학적 문제 등이다.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이유로 사회적 적응력이 결여 되어 있어, 변화된 학교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울 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학업,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 등(Chu, Min, & Park, 2001)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성적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취업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갑자기 늘어난 대인관계

에 의한 잦은 술자리와 흡연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건강을 위협하는 뚜렷한 증상이 생기지 않은 시기여서 건강관리에 대한 불감증으로 건강 증진 행위를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다(Kim & Jung, 2002).

한편 간호대학생들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적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외에도 간호학과의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즉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엄중한 행동 규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다양한 임상상황 아래서의 실습, 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Jung & Shin, 2006). 이들은 임상실습으로 인하여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대인관계 경험을 갖게 되고, 임상실습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당면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긴장,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잠재적으로 안

* 부산 대동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교신처자 조향숙 : logocho@lycos.co.kr

고 있다.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우울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동일한 의견을 보인다(Kim & Kim, 2008).

청소년의 우울은 간호대학의 여대생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간호대학 여대생 중 25.4%가 DSM-IV의 우울에 대한 진단기준 중 5개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교육 과정이 타대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비해 큰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이 될 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울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Williams, 1988).

우울은 흥미를 잃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며 대인관계, 인지, 문제해결, 사회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며,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기능장애를 가져온다(Ha, Oh, Song, & Kang, 2004).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가 우울감이라는 연구와 자살 충동의 가장 강력한 변인 중 하나가 우울 증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Kim, 2008).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과 관련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순차적인 경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며, 지난 30년 사이에 15-24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3배 이상 증가했다(Kim, 2001). 자살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나 희망과 현실 간의 괴리가 내적으로 귀인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우울이 초래되고, 이 우울이 인지적 몰락 상태를 유발하여 결국 자살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Baumeister, 1990). 자살과 관련된 행위를 일컫는 '자살행동'이란 용어에는 자살생각, 자살 시도

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Waldrop et al., 2007). 자살생각은 일반적으로 자살 시도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바, 자살생각은 실제로 자살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이며, 자살생각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살 행위나 자살 시도에 앞서므로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부터 자살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Kim et al., 2008).

한편 자살의 위험요인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그 중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사회 심리적 소인과 환경적 촉발 사건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즉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개인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대해 견디는 힘이 적어서 쉽게 심리장애를 가지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취약성 요인이 적은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인 스트레스는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Jung & Sung, 2008).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 사건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살과 관련된 행위를 더 많이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Choi, 2004).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 대학생의 스트레스정도를 알아보고 스트레스와 더불어 개인의 정신건강을 추정해볼 수 있는 우울과 자살생각 정도를 조사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의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일개 간호 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7년 11월 1일에서 12일까지 B시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전문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연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딩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설명 이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24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기록이 누락되거나 미 회수된 자료를 제외한 213명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스트레스

Lee(2001)가 self-test용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총25문항, 점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50점 이하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 50-60점은 다소 스트레스(불안)한 상태, 60점 이상이면 심한 스트레스(불안) 상태로 본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0이다

2) 우울

Beck 등(1967)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Lee(1993)가 번역한 것으로 이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Likert 4점 척도로 총 21문항,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며, 0-9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은 가벼운 우울상태, 16-23은 중한 우울상태, 24-63은 심한 우울상태로 본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이다.

3) 자살생각

Beck(1979)이 개발한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은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해 임상이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을 Shin(1992) 등이 자가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킨 척도로서 Likert 3점 척도이다. 총점 범위는 0에서 38점으로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이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C-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집 된 대상자 213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5명(7.0%), 여학생이 198명(93.0%)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85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50명(23.5%), 기독교 49명(23.0%)이었다. 교우관계는 '좋다' 182명(85.4%)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좋다' 18명(8.5%)이었다. 흡연은 '전혀 안 피운다' 199명(93.4%), '가끔 피운다' 10명(4.7%)이었고, 음주는 '가끔 마신다' 162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안 마신다' 43명(20.2%)이었다. 상담치료는 '받은 적이 없다' 206명(96.7%), '받은 적이 있다' 7명(3.3%)이었고, 자살시도는 '없다' 201명(94.4%), '있다' 12명(5.6%)이었고, 신체질환은 '없다' 202명(94.8%), '있다' 11명(5.2%)이었다. 경제상태는 '중' 185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하' 27명(12.7%)이었고,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정상결혼 187명(87.8%), 이혼(별거) 16명(7.5%)이었다.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하다' 97명(45.5%), '매우화목' 55명(25.8%), '보통' 52명(24.4%)으로 나타났다. 부와의 대화는 '잘 된다' 113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잘 안 된다' 51명(23.9%)이며, '매우 잘 된다' 37명(17.4%)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13)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15	7.0
	Female	198	93.0
Religion	Christianity	49	23.0
	Buddhism	50	23.5
	Catholicism	15	7.0
	Atheism	85	39.9
	Etc.	14	6.6
Relationship with friend	Very good	18	8.5
	Good	182	85.4
	Not good	13	6.1
Smoking	None	199	93.4
	Sometimes	10	4.7
	Habituation	4	1.9
Experience of psychotherapy	Yes	7	3.0
	No	206	96.7
Trial suicide	Yes	12	5.6
	No	201	94.4
Physical disease	Yes	11	5.2
	No	202	94.8
Economical levels of family	High	1	0.5
	Middle	185	86.9
	Low	27	12.7
Marital status of parents	Live together	187	87.8
	Divorcement(separation)	16	7.5
	Remarriage	4	1.9
	Etc	6	2.8
Family atmosphere	Very friendly	55	25.8
	Friendly	97	45.5
	Average	52	24.4
	Unfriendly	9	4.2
Conversation with father	Very well	37	17.4
	Well	113	53.1
	Bad	51	23.9
	None	12	5.6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스트레스는 최소 33점, 최대 83점으로 전체 평균 50.7±9.06점, 우울 점수 최소 20점, 최대 55점 전체 평균 28.1±5.99, 자살생각은 최소 19점, 최대 40점 전체 평균 24.0±4.95 이

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13)

	Mean	SD	Min	Max
Stress	50.7	9.06	33	83
Depression	28.1	5.99	20	55
Suicide ideation	24.0	4.95	19	4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은 <Table 3>과 같다. 스트레스는 교우관계, 자살 시도, 신체질환, 가정 분위기, 부와의 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우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Table 3>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3)

Characteristics	Category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Mean(SD)	F or t (p)	Mean(SD)	F or t (p)	Mean(SD)	F or t (p)
Gender	Male	51.9(10.80)	.55	25.7(4.94)	-1.56	22.1(4.27)	-1.53
	Female	198.0(50.60)	(.58)	28.2(6.04)	(.12)	24.1(4.99)	(.12)
Religion	Christianity	48.8(8.01)	1.65	27.5(6.13)	1.35	23.0(4.85)	1.24
	Buddhism	49.5(8.46)	(.16)	26.8(5.18)	(.25)	23.6(3.79)	(.29)
	Catholicism	51.7(7.18)		29.8(6.15)		25.8(6.24)	
	Atheism	51.5(9.62)		26.6(5.87)		24.1(5.13)	
	Etc	55.0(11.60)		29.5(8.35)		25.1(5.54)	
Relationship with friend	Very good	47.0(7.02)	8.68	26.6(6.40)	6.42	23.2(4.74)	.37
	Good	50.4(8.86)	(.00)		(.00)	24.0(4.98)	(.69)
	not good	59.8(9.34)				24.8(5.06)	
Smoking	None	50.5(9.01)	.83	28.1(5.96)	.07	23.9(4.95)	.33
	Sometimes	54.2(10.90)	(.43)	28.3(7.19)	(.93)	25.0(5.47)	(.71)
	Habituation	52.0(6.68)		27.0(5.71)		25.0(4.89)	
Experience of psychotherapy	Yes	55.1(7.78)	1.32	32.7(6.05)	2.11	25.0(5.20)	.56
	No	50.5(9.09)	(.19)	27.9(5.94)	(.04)	23.9(4.96)	(.57)
Trial suicide	Yes	55.9(12.20)	2.07	32.3(9.78)	6.61	30.8(6.18)	5.25
	No	50.4(8.79)	(.04)	27.8(5.62)	(.01)	23.5(4.58)	(.00)
Physical disease	Yes	58.4(11.40)	2.82	33.2(7.63)	2.81	26.8(4.98)	1.86
	No	50.3(8.79)	(.01)		(.01)	23.8(4.93)	(.07)
Economical levels of family	High	46.0(.00)	1.58	20.0(.00)	1.79	20.0(.00)	2.32
	Middle	50.3(8.98)	(.22)	27.9(6.05)	(.169)	23.7(4.92)	(.10)
	Low	53.4(9.51)		29.5(5.40)		25.7(4.99)	
Marital status of parents	Live together	50.4(8.72)	1.16		1.09	23.7(4.74)	1.05
	Divorcement(separation)	54.6(11.80)	(.33)		(.351)	25.9(5.83)	(.37)
	Remarriage	52.5(12.40)				25.3(9.87)	
	Etc	49.2(9.68)				24.7(5.57)	
Family atmosphere	Very friendly	47.5(7.83)	4.84	26.1(4.80)	5.49	22.1(3.56)	5.58
	Friendly	50.6(9.88)	(.00)	27.7(6.48)	(.00)	24.1(5.22)	(.00)
	Average	53.8(7.31)		30.3(5.24)		25.0(4.97)	
	Unfriendly	53.2(10.40)		30.9(6.91)		27.8(5.63)	
Conversation with father	Very well	47.1(6.96)	4.22	26.5(4.56)	3.37	22.4(3.93)	2.98
	Well	50.4(9.21)	(.01)	27.5(5.94)	(.02)	23.9(4.98)	(.03)
	Bad	53.8(8.10)		30.0(5.57)		24.5(5.09)	
	None	51.6(13.10)		29.8(9.52)		26.9(5.69)	

좋다가 타 집단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8.68$ $p<0.001$). 자살 시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t=2.07$ $p<0.05$),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t=2.82$ $p=0.05$). ‘가정 분위기가 매우 화목’의 경우가 다른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F=4.84$ $p<0.05$), 부와의 대화가 잘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F=4.22$ $p<0.05$).

우울은 교우관계, 상담치료, 자살시도, 신체질환, 가정 분위기, 부와의 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우관계는 매우 좋다가 우울 수준이 낮았고($F=6.42$ $p<0.05$), ‘상담치료는 있다’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고($t=2.11$ $p<0.05$), ‘자살시도는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고($t=6.61$ $p<0.05$),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가 없는 집단보다 우울수준이 높았고($t=2.81$ $p<0.05$), ‘가정 분위기는 매우화목’의 경우가 다른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고($F=5.49$ $p<0.05$), ‘부와의 대화가 잘됨’이 그렇지 않는 경우 보다 우울수준이 낮았다($t=3.37$ $p<0.05$).

자살생각은 자살 시도, 가정 분위기, 부와의 대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살 시도는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많았고($t=5.25$ $p<0.001$), ‘가정 분위기가 매우 화목’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적었고($F=5.68$ $p<0.05$), ‘부와의 대화가 잘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생각은 적었다($F=2.98$ $p<0.05$).

4.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간의 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스트레스와 우울($r=.60$ $p<0.001$), 스트레스와 자살생각($r=.27$ $p<0.001$), 우울과 자살생각($r=.46$ $p<0.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논 의

간호 대학생들은 이론 교육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므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을 일으킬 위험이 높으므로 대응방안 마련으로 간호대학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1.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는 ‘다소 스트레스(불안)한 상태’ 였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 도구와는 다르지만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Kim, 2006)에서 임상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간호사 국

<Table 4> Correlation among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n=213)

Variables	Stress r(p)	Depression r(p)	Suicidal ideation r(p)
Stress	1.000		
Depression	.60(.00)	1.000	
Suicide ideation	.27(.00)	.46(.00)	1.000

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다양한 임상상황 아래서의 실습, 환자에 대해 가지는 책임감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전체 우울 평균 점수는 '심한 우울상태'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ang, Cho, Song과 Kang(2004)의 결과(12.48), 일개 군 지역 1, 2학년 남, 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2002)의 결과(13.24)보다 높았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발달과업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우울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점에 기인될 수 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Kang 등(2004)의 연구(25.93)보다는 낮게 나왔고, 서울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1992)의 연구에서(11.73)와 서울과 인천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1998)의 연구(9.16)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Kang 등(2004)의 연구 대상이 속해 있는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시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런 발달과제의 부담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 충동성의 조절이 미숙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를 거친 초기 성인기로 청소년보다 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인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시키며 내적 방어력을 향상시켜 자살생각 정도 감소를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가 Hwang(1988)의 연구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이유는 이는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보다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해마다 자살의도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교우관계가 매우 좋고', '가정 분위가 매우 화목하며', '부와의 대화가 잘 되는' 경우가 타 집단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자살 시도가 있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는 스트레스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내적 외적 요구에 의해 개인이 위협 받는다고 평가될 때 경험되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우관계는 매우 좋다', '가정 분위기는 매우 화목', '아버지와의 대화가 잘됨의 경우' 우울 수준이 낮았고, '상담치료는 있다', '자살 시도는 있다',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가 우울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이 15명(7.0%), 여학생이 198명(93.0%)이므로, 여학생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는 사건에 반응하여 정서를 고양시키는 사건에 대해 우울수준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담치료를 받은 경우는 대상자 스스로가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정서적 반응으로 우울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태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이는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Hong, Kim, Lee와 Hwang(2003)의 연구와는 상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경제 상태가 '상인 사람이 한명 뿐이었고 경제상태 '중, 하'가 212명이기에, 경제 상태에 따른 우울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우울 점수는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은 가난한 집단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취약하고 신체질환을 많이 앓으며 사회적 소외를 더 많이 겪는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Husami,

Neff, Harrington, Houghs, & Stone, 1980)와 일치한다.

‘자살 시도는 있는’ 경우가 자살생각이 많았고, 가정 분위기가 매우 화목하고, 부와의 대화가 잘되는 경우가 자살생각은 적었다. 이는 Lee, Kweon와 Kim(2007)의 연구에서 결혼가정의 경우, 경제 상태가 어려울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각이 높았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는 Kim과 Noh(2003)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개인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대해 견디는 힘이 적어서 쉽게 심리장애를 가지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준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사이의 상관관계는 $r=.60(p<.001)$ 로 Sung, Yoon과 Son(2005)의 연구에서 $r=.45(p<0.1)$ 보다 높았다. 즉 간호대학생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와의 상관관계가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의 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엄격한 교육과정과 엄정한 행동규범, 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임상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Choi(2004)의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와 당면 과제 스트레스를 우울, 자살생각

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즉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나 자살생각 등을 나타내는 경향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ho(2007)가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상관성이 높지 않다 라고 보고 한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설명하는 변량이 4-15% 정도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스트레스만으로는 우울을 잘 예측할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른 변인을 고려하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의해 추론될 수 있다(Doo, 2002). 즉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상관성이 높지 않은 결과를 보인 논문은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대처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r=.27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과 자살생각($r=.46 p<.001$)은 양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ong(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 시도자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에서 .40에서 .60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스트레스 및 우울이 잠재적 위험이 됨을 시사하며, 스트레스는 직접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B시 소재 일개 간호 대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스

트레스와 우울($r=.60$ $p<.001$), 스트레스와 자살생각($r=.27$ $p<.001$), 우울과 자살생각($r=.46$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높아지며,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상담 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 할 수 있고 우울과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추후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본 연구에서는 B시 소재의 간호대학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같은 학교 다른 학년, 타 전공, 타 지역까지 연구범위를 확대시키는 후속 연구의 시행을 제안한다.
2.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 정도가 높게 나왔으므로 간호대학생과 일반 대학생 간의 비교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3. 간호대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고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Am J Community Psychol* 7, 343-352.
- Cho, S. E. (2007). Emotional clarity, emotional their involvement in stress copying style and depression.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2(4), 32-40.
- Choi, A. S. (2004).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life stress on their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isty, Taejon.
- Chu, J. P., Min, B. I., & Park, S. G. (2001). Perceived sources and copying methods of stress in a popul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J Stress Res*, 9(2), 41-50.
- Doo, K. J. (2002).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perfectio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Gong, S. J., & Lee, E. H. (2006). Mediation effect of copying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1(1), 21-40.
- Ha, E. H., Oh, K. J., Song, D. H., & Kang, J. H. (2004).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Korean J Clin Psychol*, 23(3), 263-279.
- Hong, S. C., Kim, M. D., Lee, C. I., & Hwang, S. W. (2003).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on Jeju Island in Korea. *Cheju Journal of Medicine*, 1(1), 35-46.
- Hong, S. Y., & Jeon, S. Y. (2005).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19(4), 125-149.
- Husami, B. A., Neff, J. A., Harrington, J. B.,

-
- Houghs, M. D., & Stone, R. H. (1980). Depression in rural communities validating the CES-D SCALE. *J Community Psychol*, 8, 20-27.
- Hwang, K. S. (1998). *The effect of adolescent's depression, family relationship and copying style in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ung, H. H., & Sung, H. A. (2008). The verification of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stress, copying styles,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impulsiv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0(4), 1149-1171.
- Jung, M. H., & Shin, M. A. (2006). Correlations between self 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Nurs Edu*, 12(2), 170-177.
- Kang, E. S., Cho, H. S., Song, Y. S., & Kang, S. N. (2004). Relationship of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spiritual, well-being of adolescence.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3(2), 190-199.
- Kim, B. Y. (2008).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nam University, Gwangju.
- Kim, C. S., & Noh, S. D.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uicidal impulse and psychosocial variables; ego-resilience, school and family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J Student Guidance Research*, 21, 153-172.
- Kim, H. S., & Kim, B. S. (2008).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its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201-219.
- Kim, S. Y. J. (2001). *The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II(4th edition)*. Seoul: SooMoonsa,
- Lee, C. S., Kweon, Y. R., & Kim, S. J. (2007).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6(1), 32-40.
- Lee, E. J., & Lee, E. S. (2002).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delinquency i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9(1), 56-65.
- Lee, W. H., & Kim, C.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perceived stress, fatigue and anger in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Nurs* 36(6), 925-932.
- Lee, Y. H. (1993). *The relations between attributional style, life events, event attribution, hopeless and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Lee, Y. H. (2001). *Mental health*. Seoul: Hyunhaksa.
- Shin, M. S.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ung, M. H., Yoon, J. W., & Son, H. Y. (2005).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mental health in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Pschy Mental Health Nurs* 14(2), 186-194.
- Waldrop, A. E., Hanson, R. F., Resnick, H. S. Kilpatrick, D. G., Naugle, A. E., & Saunders,

B. E. (2007).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r among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J Trauma Stress*, 20(5), 869-879.

Williams, R. A. (1998). The relationship of cognitive styles and stress in nursing student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0(4), 449-462.

ABSTRACT

Key Words :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Nursing students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Cho, Hyang Suk*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were 213 nursing students in B city. Data was collected from November 1, 2007 to November, 12, 2007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s and convenience sampling. Measuring instruments collecting data were SSI (scale for suicidal ideation) developed by Beck (1979),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translated by Lee (2001), scale for stress developed by Lee (2001).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PC 12.0. **Result:** 1. Mean value of stress (50.69) of nursing students were moderate level, depression (28.06) was high, suicidal ideation was moderate. 2.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of nursing students. 3. Stress of nursing students with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r=.60$ $p<.001$) and suicidal ideation ($r=.27$ $p<.001$).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w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suicidal ideation ($r=.46$ $p<.001$). **Conclusion:** Stress of nursing students was inclined to increase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Therefore,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guidance program to decrease stress of nursing students is recommended.

* Full-time Instructor of Nursing Department, Daedong College, Busan